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8, pp. 381-391, 2018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8.16.8.381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만족도 측정도구 개발

최유리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The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Tool for Educational Satisfaction of Sport Ethics Program

Choi, You-Lee
Dept. of Physical Educatio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만족도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얻어진 응답 결과를 토대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2단계는 예비조사 단계로서 1단계에서 진행된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성을 확보하였다. 3단계는 본조사 단계로서 차이 검증을 통해 측정도구의 외적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만족도 측정을 위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교육내용 6문항, 강사역량 5문항, 교육효과 6문항, 총 3개 영역 17개 문항으로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만족도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이 연구는 실효성 있는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윤리적인 소양을 지닌 스포츠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스포츠계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스포츠윤리, 스포츠윤리교육, 교육만족도, 측정도구, 측정도구 개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easurement tool for education satisfaction of sport ethics program and to verify its validity. To achieve this goal, 3 steps of experimental processes were carried out. In the first step, the pilot questionnaires was created on the basis of previous researches regarding sport ethics education, education satisfaction, and response assessment. In the second process, as a pilot survey step, construct validity was obtain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measure constructed by the first process. In the third process, as a main survey step, external validity was obtained through difference verification, then questionnaires were constructed based on the analyzed contents. As a result of these steps, a measurement tool for educational satisfaction of sport ethics program composed of 17 questionnaires was developed. It consists of education contents (6), instructor competency (5), and education effect (6).

Key Words : Sport Ethics, Education of Sport Ethics, Education Satisfaction, Measurement, Measurement Tool

1. 서론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4대 메이저 스포츠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한국 스포츠는 짧은 시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젠 일상생활의 한 분야로서,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스포츠에서 불법적이고 부조리한 사건·사고

*Corresponding Author : Choi, You-Lee(yuritkd@hanmail.net)
Received July 3, 2018
Revised July 26,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Published August 28, 2018

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커진 프로스포츠에서 승부조작, 심판매수, 폭력, 불법도박, 금지약물 복용 등 스포츠의 근간을 해치는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행위들이 어느 특정 프로스포츠 종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종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국내 프로축구 승부조작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회범죄로까지 질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2017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까지 매년 끊이지 않고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음란행위, 폭행, 음주운전 등 프로선수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사건·사고들 또한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처럼 지속되는 프로스포츠계의 비윤리적 사건들은 단순히 어느 한 개인의 치부가 드러나는 상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프로스포츠의 존폐여부 뿐만 아니라 페어플레이가 생명인 스포츠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1].

2011년 프로스포츠의 승부조작 사건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는 프로선수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정방지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부정방지교육은 승부조작이라는 제한된 교육내용과 일방향적인 강의식 교수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수들의 의식을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달리 말하면, 기존 부정방지교육은 문제상황에 대한 도덕적 감수성을 길러주고, 문제를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과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실천의지를 길러주는 윤리교육이 아니라, 단순히 규정과 처벌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는 것에만 그쳐 윤리교육으로서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스포츠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는 기존의 부정방지교육을 개선하여 윤리적인 소양을 갖춘 스포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상별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7년부터 적용하였다[2].

스포츠윤리란 스포츠 상황에서 스포츠인이 행동하는데 요구되는 행동원리이다[3]. 스포츠윤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것(the good)' 보다는 '옳은 것(the right)'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인이 스포츠 안에서 윤리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가, 어떤 행위가 바람직한 행위인가에 대한 행동원리나 도덕적 표준에 관한 탐구를 스포츠윤리라고 요약할 수 있다[3]. 그렇다면 스포츠윤리를 교육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스포츠윤리교육은 '스포츠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포츠인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즉, 스포츠윤리교육은 스포츠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상황에 대해 스포츠인 스스로가 올바르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며,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1]. 따라서 스포츠윤리교육의 목적은 스포츠선수의 도덕성 신장을 통해서 실제 스포츠현장에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잠재력과 도덕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3].

스포츠윤리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포츠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스포츠계를 넘어 일반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제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4-7]. 또한 스포츠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스포츠윤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행연구들이 많았다[1,8].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스포츠윤리교육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스포츠윤리교육의 실제적 적용 및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스포츠윤리교육은 교육대상자의 교육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육목적의 달성여부 혹은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스포츠윤리교육 실시 후,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만족도를 확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교육만족도는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주관적 만족과 다양한 변인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의 다면적 접근이며, 이는 학습자의 총체적인 학습활동 경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9,10]. 이러한 교육만족도는 교육의 질 관리와 교육서비스 수준 및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로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실증되고 있다[11].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과정은 학습자의 동기를 자극하여 교육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12,13], 교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며[11,14], 교육의 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5]고 선행연구들은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교육만족도가 교육프로그램이 의도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프로그램 개선과 수립을 위한 준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16].

대부분의 교육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교육은 교육 '수요자'의 입장이 아닌 교육 '대상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본 연구는 기존 교육만족도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프로스포츠 선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 아니라 현재는 구단 혹은 연맹이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대상자들의 주관적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 교육의 질적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즉, 교육대상자의 교육 참여 동기 및 의지를 향상시키고 대상자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운영, 강사의 역량, 교육환경,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교육만족도를 확인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요컨대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교육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수요부응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검증을 위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교육만족도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객관적인 교육만족도 측정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스포츠인의 도덕적 자율성 함양이라는 스포츠윤리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보다 효과적인 스포츠윤리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17년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를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편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1,460명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교육만족도 문항을 탐색하기 위한 개방형 설문에 40명,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교육만족도 문항구성에 따른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설문에 461명,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과 개발된 측정 도구의 외적 타당도 검증을 위한 설문에 839명이 참여하여, 총 1,340명의 설문자료가 연구에 이용되었다. 이 중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삭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Subjects' General features by study process

process	Sport		Performance Level		Experience		Total
	Base ball	Foot ball	1st string	2nd string	O	X	
Open survey	20	20	40	0	28	12	40
Exploratory factor analysis	260	201	400	61	251	210	46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ternal validity	660	179	484	355	514	325	839
Total							1,340

2.2 연구진행절차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2.2.1 예비문항 구성

1단계에서는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만족도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구성요인을 탐색하였다. 교육만족도 측정도구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먼저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스포츠윤리교육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이다. 즉,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주체는 스포츠윤리교육의 효과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스포츠인의 도덕적 자율성 함양이라는 스포츠윤리교육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윤리교육의 교육내용,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주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1,3,8]을 검토하고, 교육만족도[11,17,18]와 반응평가[16,19]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개방형 설문을 제작하였다. 개방형 설문은 '스포츠윤리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를 묻는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개방형 설문을 통해 확보된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교육만족도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1차 측정 구인 및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예비문항은 전문가 집단(스포츠윤리학 전공 교수 1인, 스포츠윤리교육 전문강사 2인, 스포츠교육학 전공 박사 1인, 스포츠윤리교육 실무자 1인)을 통해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총 26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2.2.2 예비조사

2단계에서는 스포츠윤리교육에 참여한 프로스포츠 선수 461명에게 1단계에서 구성된 예비문항을 활용하여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척도의 문항에 대한 통계적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즉, 예비척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및 내적구조에 근거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검증된 예비척도는 전문가 집단(스포츠윤리학 전공 교수 1인, 스포츠윤리교육 전문강사 2인, 스포츠교육학 전공 박사 1인)의 검토를 거쳐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교육만족도 측정도구의 구성요인에 대한 명명과 최종 예비문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2.2.3 본 조사

마지막 3단계에서는 2017년 스포츠윤리교육에 참여한 프로스포츠 선수 839명을 대상으로 측정 문항의 신뢰도 및 내적구조에 근거한 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최종 구성된 문항을 중심으로 내용의 외적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외적타당도 검증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의 차이' 검증을 통해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2.3 자료처리방법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만족도 측정도구 개발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자료처리방법을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문헌고찰과 개방형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 개발을 위한 내용을 구성하였다. 개방형 설문의 원자료 분석은 응답된 문장 속 의미를 유사한 것끼리 묶어 분류하는 의미미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원자료의 통합된 분석은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교육만족도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예비 문항은 전문가 협의회(스포츠윤리학 전공 교수 1인, 스포츠윤리교육 전문강사 2인, 스포츠교육학 전공 박사 1인)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2단계에서는 구성된 설문지에 대한 편포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첨도 및 왜도, 그리고 반응편향성 확인을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만족도 측정도구의 구인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추출 방법은 주축요인추출(principle axis factoring), 회전방법은 사각회전방법 중 프로멕스(promax)방법을 사용하였다. 탐색된 하위문항들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Chronbach's α계수(내적일치도)를 산출하였다. 회전에 따른 분석은 공통비 .4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은 .5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외적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도출된 교육만족도 측정도구의 외적타당도 검토를 위하여 SPSS를 활용하여 독립 t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개방형 설문에 대한 귀납적 내용분석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교육만족도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탐색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Table 2와 같이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교육만족도 구성요소는 총 133개의 원자료가 확보되었으며,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최초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교육만족도의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내용(11문항), 강사역량(8문항), 교육효과(7문항) 총26문항으로 1차 측정도구가 구성되었다.

3.2 예비문항에 대한 문항분석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교육만족도 측정문항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를 분석하였다. 예비문항에 대한 문항분석은 선행연구들[20,21]에서 제시한 기준(평균 1.7미만 또는 4.3초과, 표준편차 .09미만, 왜도 ±2이하, 첨도 ±7이하)에 근거하였다.

그 결과, 각 문항의 평균은 3.86~4.28, 표준편차는 .693~.977, 왜도는 -1.118~-.660, 첨도는 .368~2.345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제시한 근거 기준에 벗어나는 문항이 존재하지 않아 모든 문항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Induc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Raw data	Sub category	General category
Unethical behavior of athletes(15), The risk of sports gambling and match fixing(10), Interesting contents(2),Valuable education(3) Appropriate level of education contents(5), To inform what sports ethics education(5), What sportsman needs and not to do(7), A realistic case(4)	Relevance of sports scene(25), Interesting(2), Quality of education contents(3), Level of educational contents(5), Understanding of sports ethics(5), Acquire knowledge of sports ethics(7), Practical information learning(4)	Education contents
Active lectures(2), Understand to professional athletes(5), Understand to professional sports(1), An exact explanation(8), Clear answer(8), Specific explanation(2), Using video(6), Instructor's Sports Experience(6), Explain understanding easily(3), Explain with easy words(4)	Passion for teaching(2), Understanding of sports(6), Acquiring knowledge of sports ethics(18), Utilizing effective teaching materials(6), Intimacy with learners(6), Understanding learners(7)	The capacity of instructor
Help to moral thinking(2), Help to moral judgment(5), Make clear the right decision(1), Moral behavior change(8), Responsibility for Clean Sports(3), Help to live(5), Help to recognize why you are in sports.(3), It helps me to behave in my job(2), Helping you to act as a professional player(10)	Moral recognition(2), Moral judgment(6), Willingness to moral practice(8), Social responsibility(3), Help as a sports person in life(5),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s an athlete(15)	Educational effect

3.3. 1차 측정도구의 내적 구조 타당도 검증

3.3.1 예비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예비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개 영역, 17개의 문항으로 추출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먼저 3개 영역에서 요인계수가 다른 요인과 중첩되어 다중공선성을 보유하거나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이 낮은 1, 2, 9, 10, 11, 13, 15, 16, 20번의 총 9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그런 후, 나머지 총 17문항을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수준(χ^2=7535.120, $p<.001$)과 KMO 측도(.960)은'상관 행렬이 0이다'라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표본 변인간의 상관이 유효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확보된 원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성(communality)은 .554~.860로 승인범위(1점 이상)를 넘는 문항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유치(eigenvalue)가 1.0 이상인 3개 요인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607~.919의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또한 3개 요인의 누적 변량은 70.18%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탐색된 하위문항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한 결과 신뢰도 값은 .904~.947의 범위를 보였으며, 전체 Alpha 계수는 .966으로 나타나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교육만족도의 구성요인은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No	Factors loading			h^2	Cronbach's α
	Effect	Content	competency		
s26	.919	-.092	.089	.646	.947
s25	.911	-.080	.098	.652	
s24	.877	-.080	.145	.762	
s23	.762	.167	-.015	.699	
s22	.740	.189	-.125	.579	
s21	.679	.237	-.059	.666	
s4	.005	.830	-.036	.554	.920
s5	-.091	.785	.153	.650	
s6	-.024	.775	.150	.700	
s3	.199	.735	-.117	.716	
s8	.126	.642	.101	.666	
s7	.062	.623	.119	.675	
s17	-.008	-.024	.860	.633	.904
s18	-.019	.051	.822	.772	
s19	.128	.057	.676	.860	
s12	.017	.090	.664	.857	
s14	.140	.117	.607	.845	
Eigen value	10.49	1.24	1.07		.966
Variable	60.03	5.80	4.33		
Cumulative	60.03	65.84	70.18		
K-M-O			.960		
Bartlett's Test			χ^2: 7535.120 $p<.001$		

3.3.2 측정도구의 하위변인 별 상관관계

다음으로 각 요인간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와 같이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만족도 측정 도구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정(+)의 방향을 보였으며, 하위변인 간 .724~.784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하위변인 간의 높은 상관관계(.8이상)가 나타나지 않아 하위변인 간의 상관이 수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4. Correlations by sub factors

	M	SD	a	b	c
Content(a)	4.07	.65	.764a)		
Competency(b)	4.23	.62	.738**	.780a)	
Effect(c)	4.15	.71	.740**	.724**	.784a)

** $p<.01$, a) AVE

3.2.3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교육만족도 측정도구의 17개 문항을 중심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 성립 여부의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산출된 분산추출지수(AVE)값을 이용하여 집중타당성을 검증하였다[22]. 이에 따른 구조 경로도와 적합도의 검증결과는 Fig. 1, Table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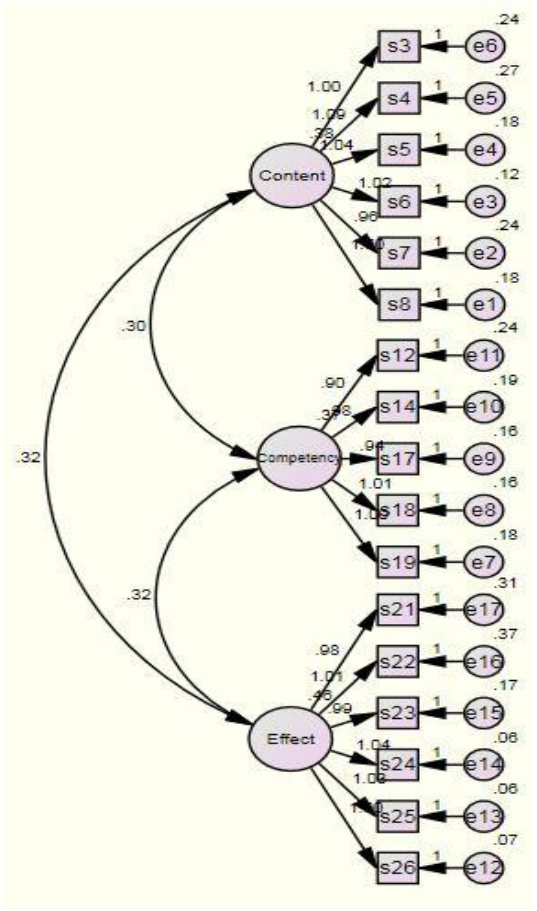

Fig. 1.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able 5. Goodness of Fit Test

χ^2	df	p	RMR	TLI	GFI	CFI	RMSEA	PNFI
59.593	32	.002	.027	.930	.867	.950	.064	.789

모델구조의 적합판정은 절대부합지수(RMR, RMSEA, GFI), 증분부합지수(TLI, CFI), 간명부합지수(PNFI)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23,24]에 의하면, RMSEA 값이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5-.08이면 적당한 적합도, .10 이상이면 부적합지수라 하였고, TLI, CFI, GFI값은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지수라고 하였으며, PNFI 값은 .60 이상이면 적합지수라고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제시된 적합도 지수를 기준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절대부합지수에서 원소간평균차이인 RMR(.027), 개략화 오차평균인 RMSEA(.064), 기초부합지수인 GFI(.867)는 적합기준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분부합지수에서 비표준적합도인 TLI(.930)와 비교적합도인 CFI(.950)는 적합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명부합지수에서 간명표준적합지수인 RNFI(.789) 또한 적합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진행된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교육만족도 측정 도구는 신뢰할만한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지수평가에 의한 구조적 타당도인 추정계수와 측정 오차계수는 Fig. 1과 Table 6과 같다. 각 문항의 추정 비표준화 계수 크기는 .90에서 1.08까지의 수치를 보였고, 표준화 계수는 .75에서 .95까지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모든 요인의 개념 신뢰도(Internal Composite Reliability) 값은 .764-.81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확정된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교육만족도 측정도구의 문항은 Table 6과 같이 교육내용 6문항, 강사역량 5문항, 교육효과 6문항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4 척도의 외적 구조 타당도 검증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만족도 측정도구의 구조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선수의 배경변인 중 종목과 경기력 및 교육경험에 따른 교육만족도의 차이를 독립 t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프로스포츠선수의 배경변인 중 종목(야구, 축구), 경기력(1군, 2군), 스포츠윤리교육 경험(유, 무)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목에 따라 교육만족도는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 둘째, 경기력에 따른 교육만족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셋째, 교육경험에 따라 교육만족도는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에 의해서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차이 검증 결과는 다음의 Table 7과 같다. 프로스포츠선수의 종목에 따른 교육만

Table 6. Results of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for the final Questionnaires of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program for sport ethics.

Variable	No	Questionnaires	Estimate	se	Standardized Estimate	AVE	CR
Content	s8	The content of the education helps understanding Sport Ethics.	1.00		.82	.764	.951
	s7	The level of the education is appropriate.	.958	.05	.77		
	s6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is valuable.	1.02	.04	.88		
	s5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is satisfied.	1.08	.05	.83		
	s4	The content of the education is interested.	1.00	.05	.79		
	s3	The content of the education is helpful in a real life.	1.00	.05	.78		
Competency	s19	The instructor understands about Professional sports.	1.00		.82	.780	.946
	s18	The instructor has enough knowledge about Sport Ethics.	1.01	.05	.84		
	s17	The instructor has a passion about Sport Ethics.	.94	.05	.82		
	s14	The instructor considers the student's stance.	.98	.05	.81		
	s12	The instructor listens to the student's opinion	.90	.05	.75		
Effect	s26	The education for Sport Ethics is helpful to take the moral action	1.00		.93	.814	.963
	s25	The education for Sport Ethics is helpful to judge morally.	1.03	.03	.94		
	s24	The education for Sport Ethics is helpful to think morally.	1.04	.03	.95		
	s23	The education for Sport Ethics is helpful to my life.	.99	.03	.85		
	s22	The education for Sport Ethics is helpful to my exercise.	1.01	.05	.75		
	s21	The education for Sport Ethics is helpful to my future career plan.	.98	.04	.77		

Table 7. Professional sport athletes' difference verification results of the satisfaction of the education program for sport ethic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

			Content		Competency		Effect	
		N	M	SD	M	SD	M	SD
Sport	Baseball	660	4.01	.72	4.17	.69	4.09	.76
	Football	179	4.20	.54	4.35	.51	4.23	.64
	t		-3.921***		-3.875***		-2.316**	
Performance level	1st string	484	4.08	.65	4.24	.62	4.16	.71
	2nd string	355	4.00	.73	4.16	.71	4.07	.78
	t		1.468		1.830		1.817	
Experience	O	514	4.02	.72	4.17	.68	4.07	.77
	X	325	4.09	.63	4.27	.62	4.20	.70
	t		-1.520		-2.154**		-2.604*	

* $p<.05$, ** $p<.01$, *** $p<.001$

족도는 교육내용(t=-3.921, p<.001), 강사역량(t=-3.875, p<.001), 교육효과(t=-2.316, p<.001)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프로스포츠선수의 경기력에 따른 교육만족도는 모든 하위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프로스포츠선수의 교육경험에 따른 교육만족도는 교육내용(t=1.468, p>.05)의 변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변인인 강사역량(t=-2.154, p<.05), 교육효과(t=-2.604,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적 타당도 검증 결과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그 외 변인에 대해서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만족도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를 수행한 결과, 교육내용, 강사역량, 교육효과의 다차원 구조로 구성된 교육만족도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만족도 측정도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내용에 관한 6문항, 강사역량에 관한 5문항, 교육효과에 관한 6문항으로 3개 하위영역, 총 17개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Kirkpatrick[19]의 연구에서 교육평가모형으로 제시된 측정요인들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Kirkpatrick[19]의 연구 또한 학습목표와 교육내용의 일치도, 교육내용의 유익도, 강사의 전문성, 내용구성의 적절성을 교육만족도의

측정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Kirkpatrick[19]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강의환경이나 교육진행에 관한 측정요소는 구성되지 않았다. Song[17]의 '대학 교육만족도 측정도구에 관한 연구'에서도 교육만족도의 측정요인으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성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매우 흡사하나, Song[17]의 연구는 교육환경에 관한 측정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 다른 점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만족도 측정도구는 기존 교육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지만, 선행연구들이 포함하고 있는 교육환경 및 교육진행과 관련된 변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종목, 구단, 또는 구단내 1군, 2군에 따라 교육시설, 행정 서비스, 교육지원 서비스 등의 교육환경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종목에 따라, 구단에 따라 경기 및 훈련 일정이 달랐고, 이로 인해 교육장소가 클럽 하우스의 회의실, 호텔의 연회장, 체육관, 식당, 라커룸 등 구단의 일정에 맞춰 다양한 장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장소마다 음향시설, 빔스크린과 수강생의 거리, 교육매체의 사용 여건이 상이하였고, 이는 계획된 교수-학습법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달리 말하면, 교육장소에 따라 교육몰입을 위한 환경이 다르게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육환경은 교육의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25]. 따라서 스포츠윤리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에 적합한 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교육만족도 측정도구 하위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내용의 영역은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도, 난이도, 가치, 질(quality), 흥미, 효과성에 관한 내용이 측정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윤리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증가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의 의지나 감정의 변화를 통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의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Park[1,8]의 주장처럼 스포츠윤리교육은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생각과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토론, 발표 등의 능동적 교육활동을 포함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스포츠윤리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계의 주요 윤리적 이슈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스포츠윤리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강사역량의 영역이다. 이는 주로 스포츠윤리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강사의 전문성에 관한 측정요인이다. 강사의 프로스포츠에 대한 이해도, 스포츠윤리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에 대한 열의, 학습자에 대한 이해 및 배려, 경청하는 태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교육만족도의 하위변인인 강사역량은 학습자의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12,16,26,27]. 즉, 강사가 수업활동을 어떻게 구성하고 진행하는가, 학습자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교육에 열정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교육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효과적인 스포츠윤리교육을 위해서 교육내용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구성된 교육내용을 구현해내는 강사의 자질과 역량 또한 스포츠윤리교육의 효과성에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즉, 스포츠윤리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토론·토의 및 발표를 통한 문제접근 및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수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효과 영역은 스포츠윤리교육을 통한 성취목표 도달, 즉 학습자의 도덕적 민감성을 자극하였는가에 관한 측정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교육효과는 학습자의 도덕적 실천, 도덕적 판단, 도덕적 인지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Rest의 도덕적 발달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기초하여 대학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Park[1]의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윤리교육의 효과는 도덕적 인지, 정서, 행동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검증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교육효과 측정요인들 또한 단순히 스포츠윤리 지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지식이 실제 실천으로 이어졌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인식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윤리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며,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 행위의 의도가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8,29].

5. 결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 겨울스포츠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사랑하고 또 스포츠에 열광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승패를 다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임'인 스포츠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의 스포츠라 할 수 있는 프로스포츠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불법도박, 도핑, SNS 막말 등의 불미스런 사건, 사고들은 스포츠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물론 모든 프로 스포츠선수들이 기부를 하거나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성직자처럼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팬이 없으면 프로스포츠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이 팬들이 왜 스포츠를 사랑하고 스포츠에 열광하는지를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 기관과 스포츠단체에서는 프로 스포츠 종사자로서 직업윤리를 확립할 수 있는 의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프로 스포츠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선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스포츠윤리교육이 수동적이고 피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포츠선수들의 도덕적 자율성 함양이라는 스포츠윤리교육의 목적은 결코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스포츠윤리교육은 교육대상자의 교육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소 강제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육목적의 달성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 달리 말하면, 실시한 스포츠윤리교육에 대한 수강자의 교육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검증을 위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교육만족도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보다 실효성이 있는 체계적인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스포츠계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스포츠인들 스스로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전한 스포츠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교육만족도 측정도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내용에 관한 6문항, 강사역량에 관한 5문항, 교육효과에 관한 6문항, 총 3개 영역, 17개 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에 관한 영역은 교육내용의 체계성, 난이도, 가치, 질, 흥미로 구성되었다. 강사역량에 관한 영역은 학습자 배경변인에 대한 이해도, 스포츠윤리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에 대한 열의, 학습자에 대한 배려 및 이해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효과에 관한 영역은 도덕적 인지, 도덕적 판단, 도덕적 실천, 진로계획 등으로 구성되었다.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만족도 측정 도구는 종목과 교육경험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외적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 종목별 및 구단별 사정으로 인해 교육환경에 대한 측정요인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교육환경은 교육의 성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환경에 대한 요인도 고려된 교육만족도 측정도구 개발은 연구자의 후속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스포츠윤리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프로선수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스포츠윤리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향후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가 스포츠윤리와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하여, 실효성 있는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를 통하여 윤리적인 소양을 지닌 스포츠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스포츠계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S. J. Park. (2016). A Progra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n Educating Sport Ethic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5(1),* 37-47.

[2] J. H. Kim. (2016 September 29). 'Applying the principle

of zero tolerance' Announcement of amendment to prevent professional sports cheating. *Joongang Ilbo*. Retrieved from http://news.joins.com/article/20654267

[3] S. J. Park. (2014). A Theoretical Foundations on Sport Ethics. *Philosophy of Movement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22(3),* 77-97.

[4] E. K. Chung & H. S. Kim. (2000). A New Direction in Discourse on Sport Ethic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39(2),* 67-76.

[5] H. J. Lee. (1998). Sport Ethics : Social Ethics Approach and Its Significanc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37(1),* 58-69.

[6] S. K. Kim. (2010). A Legal Task for the Establishment of Sports Ethics.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13(2),* 189-210.

[7] S. Y. Lim & T. S. Lim. (2017). Seeking a Policy Paradigm of Korean Sports Ethicality: Considering Field of Taekwondo. *The Journal of Korean Alliance of Marial Arts, 19(2),* 107-118.

[8] S. J. Park. (2013). A study on the Content and Method of Sport Ethic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2(5),* 87-94.

[9] K. M. Elliott & D. Y. Shin. (2002). Student satisfaction: An alternative approach to assessing this important concept. *Journal of Higher Education Policy and Management, 24(2),* 197-209.

[10] R. L. Oliver & J. E. Swan. (1989). Consumer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equity and satisfaction in transactions: a field survey approach. *The Journal of Marketing,* 21-35.

[11] S. Y. Shin & S. Y. Kwon.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Verification of a Measurement Tool for Educational Satisfaction in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4(3),* 107-132.

[12] J. H. Park & Y. T. Kim. (2009). An Empirical Study of Effect and Improve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22(2),* 959-977.

[13] K. M. Chung, H. J. Yang, S. Y. Kim, E. J. Kim, H, K. Hong & B. H. Han. (2017). Competences, Satisfaction, and the Grade Point Average of the First-year College Students Influenced by Changes Made in the General Education System.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2),* 585-614.

[14] E. S. Han & J. D. Kim. (2003). An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on College of Education Students' Academic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0(3),* 313-335.

[15] S. Y. Shin & J. S. Kim. (2016). Investigat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ctors affecting perceived class, perceived class, learning outcomes, and education satisfac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1),* 383-402.

[16] D. L. Kirkpatrick & J. D. Kirkpatrick. (2006). *Evaluating Training Program: The Four Levels*(3rd ed.). San Francisco: BK.

[17] H. J. Song. (2016). Study on Developing Inventory of Students Satisfaction in University. *The Korea Contents Society, 16(8),* 556-567.

[18] Y. S. Ma, D. Y. Won & S. H. Park. (2016). Developing a Service Satisfaction Scale for Sports Instructor Training Program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7(2),* 281-292.

[19] D. Kirkpatrick. (1996). Revisiting Kirkpatrick's four-level model. *Training & Development, 50(1),* 54-57.

[20] J. K. Tak. (1996). *Psychological testing*. Hakjisa. Seoul.

[21] P. J. Curran., S. G. West & J. F. Finch.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22] G. S. Kim. (2007). *New Amos 7. O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Seoul: Han-na-rae.

[23] M. W. Browne & R. Cudeck.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24] L. R. Tucker & C. Lewis.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25] S. D. Kim & Y. K. Lee. (2016).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Selection Attributes of University Ski Lecture Environ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6),* 489-498.

[26] Y. K. Jin. (2014). Curriculum Development for Sport Instructors's Ability Reinforce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12(3),* 201-215.

[27] K. W. Nam & Y. K. Lee. (2017). The Relationship among Role Perception, Coaching Behavior and Coaching Confidence of Judo Coach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559-569.

[28] S. H. Lee & Y. H. Kim. (2013).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Youth Moral Test -Standardization of the test and Categorization of Moral Type-. *Korean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31,* 237-259.

[29] C. H. Kim & S. Y. Jeong. (2014). The Effects of Debate Classes based on an Ethical Decision-Making Model on Ethical Knowledge, Class Satisfaction, and Ethical Valu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0),* 405-414.

최 유 리(Choi, You Lee) [정회원]

- 2002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사)
- 2005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13년 8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12년 2월 ~ 현재 : 한국체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국민대학교,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동서울대학교 등 강사
- 관심분야 : 체육교육, 스포츠윤리
- E-Mail : yuritkd@hanmail.net